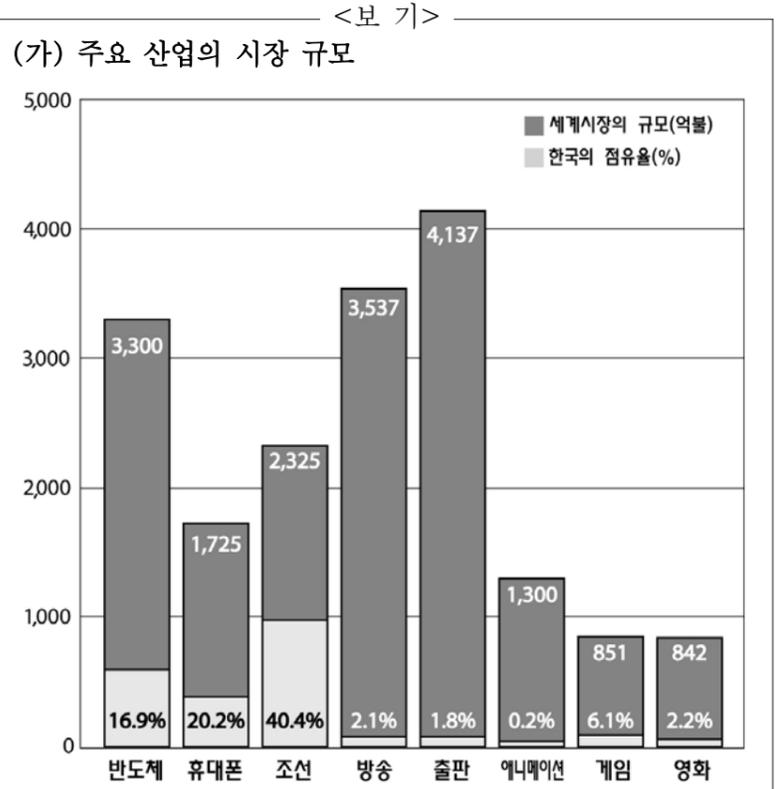


언어 영역

6. 운동 경기에 착안하여 ‘신입생의 바람직한 고등학교 생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목	착안한 점	연상한 내용
① 골프	경기장의 잔디 상태와 날씨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기한다.	고등학교의 생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여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② 역도	비교적 가벼운 무게의 바벨부터 시작하여 점점 무게를 늘려간다.	쉬운 내용부터 학습하여 점차 어려운 내용을 공부한다.
③ 농구	동료와 서로 협력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급우들과 뜻을 모으고 학급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한다.
④ 양궁	경기장 내의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과녁에 집중한다.	동아리 행사를 추진하면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때는 대표의 의견을 따른다.
⑤ 마라톤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려면 체력 안배, 속도 조절 등 효율적인 전략을 세운다.	학교 생활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

7. <보기>는 ‘문화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 주요 국가의 문화 산업 경쟁력 (각 항목 10점 만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시장 및 유통 구조	3.66	9.40	4.73	4.46	3.82
사업 환경 및 경쟁 역량	1.46	5.24	2.55	2.66	3.67
양질의 인력 공급	5.46	9.43	7.40	6.69	5.12
창작에 대한 지원	1.85	7.33	4.04	6.66	4.04
합계 (경쟁력 지수)	12.43	31.40	18.72	20.47	16.65

(다) 프로도 효과

영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말로, 이 영화가 뉴질랜드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가리킨다. 순제작비 약 2억 8,000만 달러를 들여 뉴질랜드에서 촬영한 이 영화로 인해 3만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생겼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60%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영화 창작을 지원하면서 뉴질랜드의 영화 산업은 매년 10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영화 산업의 특성은 뉴질랜드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 ① (가): 세계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문화 산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나):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③ (다): 하나의 상품이 다른 분야에서도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산업의 특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④ (가) + (다): 문화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직접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낸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⑤ (나) + (다): 우리나라도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8.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

II. 본론

1.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가. 기부 활동의 의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나.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부족

다. 사회복지 관련 정부 예산의 부족.....㉡

2. 기부 문화의 활성화 방안

가. 기부 활동의 의의에 대한 지속적 홍보

나.㉢

다. 기부 관련 단체의 기부금 관리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실시

라. 소외 계층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지원 강화.....㉣

III. 결론 :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 ① ㉠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실태 및 현황'으로 수정한다.
- ② ㉡은 상위 항목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부족'으로 바꾼다.
- ③ ㉢에 'II-1-나'를 고려하여 '재능 나눔 희망자를 위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전체의 논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 촉구'로 바꾼다.

9. 공익 광고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 기>

- 헌혈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을 것
- 비유적 표현과 대조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헌혈,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 ② 따끔함은 잠깐이지만, 따뜻함은 영원합니다. 헌혈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 ③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이 됩니다. 이웃을 위한 '한 사람 한 계좌 갖기'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 ④ 헌혈의 집에서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혈액을 관리하는 봉사자가 되어 주세요.
- ⑤ 누군가의 뜨거운 심장은 당신의 헌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첫걸음에 동참하세요.

10.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상수(virtual water)'는 1980년대 런던 대학의 토니 앨런 교수가 ㉠ 발견한 개념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 ㉡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을 만드는 데는 10 리터의 물이,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4,000 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한 물을 가상수라 한다. 만약 이런 제품을 수입한다면 이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물까지 수입하는 것이 된다.

국가별 물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가상수가 국내 물 관리 정책, 농업 정책, 통상 정책 등을 세울 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 기대되고 있다. ㉣ 가상수는 그 제품이 추가 가공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상수는 물 분쟁의 해소와 물의 효율적 분배라는 ㉤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① ㉠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시한'으로 바꾼다.
- ② ㉡은 접속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 ③ ㉢은 주어와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기대하고 있다'로 바꾼다.
- ④ ㉣은 글 전체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어려운 문제'로 고친다.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음 중 안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도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거센소리는 된소리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 ①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서 깨지지 않는다. 주먹밥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 ② [문이 덜거덕 열린다. 수레가 떨거덕 소리를 내며 굴러간다.
- ③ [햇빛이 부엌에 칠판을 비추었다. 안개가 뿌옇게 낀 아침이었다.
- ④ [일찍 일어나 마당을 삭삭 쓸었다. 마루를 갈레로 싹싹 문질러 닦았다.
- ⑤ [부모님의 의견을 쫓아 진로를 정했다. 동생은 형을 쫓아 방에 들어갔다.

12. <보기>의 '맞춤법 규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 '제30항-1-(1)'에 따라 '고래+기름'은 '고래기름'으로 적어야 한다.
- '제30항-1-(2)'에 따라 '바다+물'은 '바닷물'로 적어야 한다.
- '제30항-1-(3)'에 따라 '뒤+일'은 '뒷일'로 적어야 한다.
- '제30항-2-(1)'에 따라 '등교+길'은 '등굣길'로 적어야 한다.
- '제30항-2-(2)'에 따라 '양치+물'은 '양치물'로 적어야 한다.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윤동주, 「십자가」 -

(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①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② 이념(理念)의 꽃대 끝에
애수(哀愁)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유치환, 「깃발」 -

(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② 물 한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③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일 하나는 담쟁이일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 도중환, 「담쟁이」 -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가)와 (다)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나)와 (다)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 (가) ~ (다) 모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상상을 유발하고 있다.
- (가) ~ (다) 모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선명한 이미지로 드러낸다.
- ㉡은 깃발에 순수하고 깨끗한 의미를 더해 준다.
- ㉢은 깃발이 이상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이다.
- ㉣은 담쟁이가 처한 극한적인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 ㉤은 담쟁이의 의존적인 속성을 부각시킨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윤동주는 폭력적인 식민지 현실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시로 표현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이겨 내고, 올바른 가치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보여 주었다.

- ① 1연의 ‘햇빛’은 화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2연의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한 것에서 화자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 ③ 3연의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는 화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것이다.
- ④ 4연의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볼 수 있다.
- ⑤ 5연의 ‘어두워 가는 하늘’이란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16. 다음은 (다)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위해 준비한 메모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소설 구상 메모>

- 주요인물 : 담쟁이 A, B(고교 야구 선수)
- 주안점 : 작품이 표현하려는 인간상을 구체화한다. 시상의 흐름을 소설 전개에 반영한다.
- 줄거리 전개

담쟁이 A는 학교에서 최고의 투수이고, 담쟁이 B는 재능이 부족한 후보 선수이다.

↓

담쟁이 A가 어깨 부상으로 공을 던질 수 없게 되자, 전국 대회를 앞둔 야구부 동료들은 실의에 빠진다. ①

↓

담쟁이 B는 담쟁이 A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재활 훈련을 헌신적으로 도우며 함께 연습한다. ②

↓

담쟁이 A가 투수로 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감독은 담쟁이 A에게 타자가 되기를 권유한다. ③

↓

담쟁이 A는 감독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야구부를 뛰쳐나가 야구를 그만 두게 된다. ④

↓

담쟁이 B의 노력을 눈여겨 본 감독이 담쟁이 A를 대신하여 담쟁이 B를 주전 투수로 선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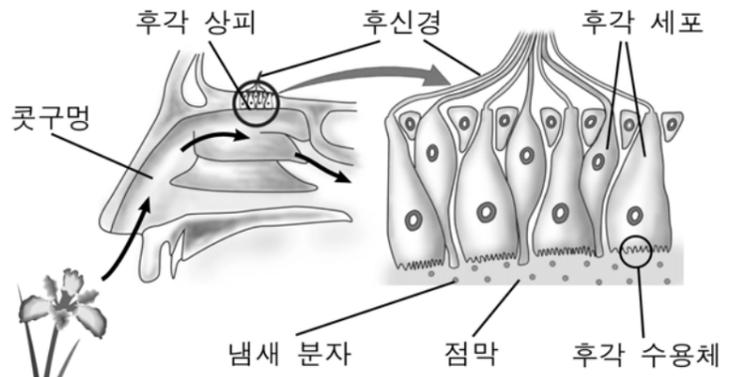
담쟁이 B가 전국 대회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자 동료들은 다시 희망을 갖고 경기하여 대회에서 우승한다. 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일본의 한 가전 회사가 냄새를 전달하는 후각 텔레비전을 개발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피자 광고가 나올 때는 피자 냄새도 전달하여 시청자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D입체 영상과 음향이 나오는 텔레비전이 상용화된 지금에도 후각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후각 텔레비전의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후각이 시각이나 청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시각으로 인지되는 빛이나 청각으로 인지되는 소리는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빛과 소리는 물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신호의 변환과 송신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리고 신호의 강약 변화만 파악하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반면에 후각의 대상이 되는 냄새는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환과 송신이 어렵고, 감각으로 인지하는 과정도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 복잡하다.

(다) 후각이 냄새를 인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냄새 분자가 호흡을 통해 콧구멍으로 들어 온 후 콧구멍 깊숙한 곳에 있는 후각 상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냄새 분자는 후각 상피를 둘러싸고 있는 점막을 통해 후각 세포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점막은 물과 복합 지방으로 구성되어 냄새 분자를 잘 녹인다. 점막으로 녹아 들어간 냄새 분자는 후각 세포의 끝에 있는 후각 수용체 중 꼭 맞는 것과 결합한다. 그러면 후각 세포는 후각 수용체와 결합한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후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한다. 이때 어느 후신경을 통해 신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뇌에서는 각각 다른 냄새로 인지하게 된다.



(라) 인간의 후각은 0.001ppm* 정도 되는 극히 낮은 농도의 ① 냄새까지 알아낼 수 있고, 3,000여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많이 무딘 편이다. 인간은 문명의 발달에 따라 후각의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다른 동물들은 지금도 적을 감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후각을 이용한다. 개의 경우, 후각 상피의 표면적이 130cm²로, 3cm²인 인간에 비해 넓고 후각 세포도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냄새를 인지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마) 지금까지 후각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지만 아직도 후각과 냄새 분자에 대해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 냄새 분자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 분자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냄새의 성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두 냄새 분자가 동시에 후각 수용체를 자극하면 제3의 냄새로 인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 분자의 구조를

밝히고, 어떤 후각 수용체가 어떤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만약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냄새 분자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기술은 후각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악취 제거나, 향기를 이용한 치료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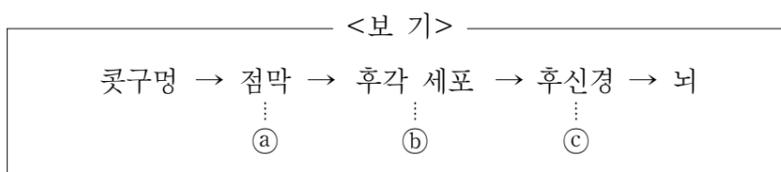
* ppm : 화학이나 생물학 등에서 100만분의 1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17.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중심 화제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비유의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적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④ (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마)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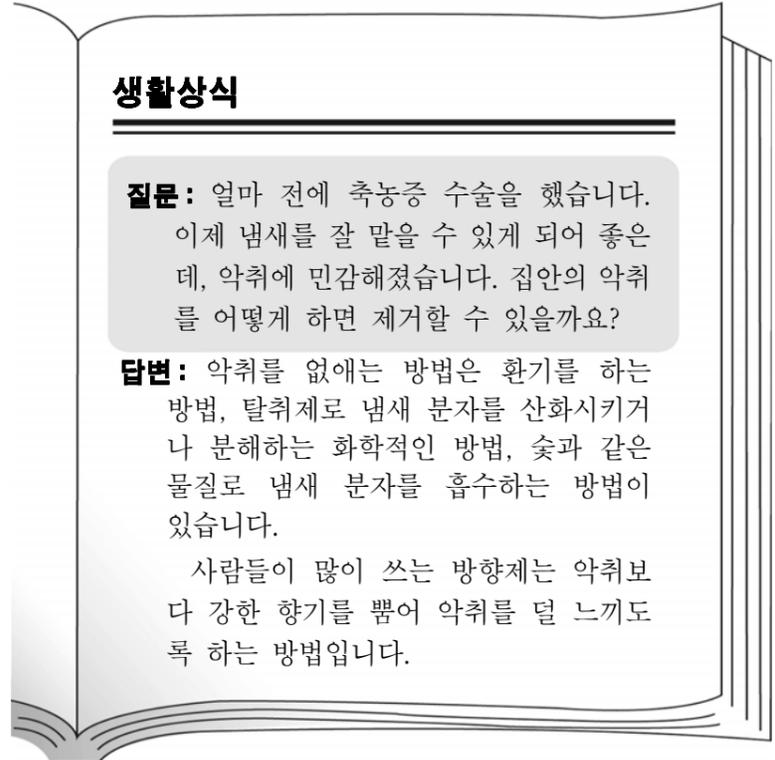
18. <보기>는 냄새 분자가 인지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① ~ ③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은 물과 복합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②는 냄새 분자를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 ③ ③의 끝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와 결합한다.
- ④ ④는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
- ⑤ ⑤를 통과하는 신호의 강도에 따라 다른 냄새로 인지된다.

19.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다음 내용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자는 현재 후각 세포가 손상된 상태이겠군.
- ② 질문자는 후각 상피의 면적이 일반인보다 좁겠군.
- ③ 숯은 후각 텔레비전을 만들 때 핵심적인 재료가 되겠군.
- ④ 탈취제는 냄새 분자의 구조를 변화시켜 냄새의 성질을 바꾼 것이겠군.
- ⑤ 방향제는 두 냄새가 합해져 냄새가 없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겠군.

20. 문맥상 ㉠의 '-까지'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내일은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한다.
- ②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시간도 안 걸린다.
- ③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청소를 한다.
- ④ 우승을 하기까지 세 번을 더 이겨야 한다.
- ⑤ 경찰은 티끌만한 것까지 살살이 조사했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성영화가 등장했던 1920년대 후반에 유럽의 표현주의나 형식주의 감독들은 영화 속의 소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컸다. 그들은 가장 영화다운 장면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장면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화 속 소리가 시각 매체인 영화의 예술적 효과와 영화적 상상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영화를 볼 때 소리를 ㉠ 없앤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마 내용이나 분위기, 인물의 심리 등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영화 속 소리는 영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소리는 영상 못지않게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대 영화감독들은 영화 속 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화의 소리에겐 대사, 음향 효과, 음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소리들은 영화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영화 속 소리는 다른 예술 장르의 표현 수단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줄거리 전개에 도움을 주거나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영상에 현실감을 줄 수 있으며, 영상의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가령 현대인의 일상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 속 소리로 일상생활의 소음을 사용한다면 영상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영화 속 소리는 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리는 높낮이와 빠르기에 따라 분위기나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소리는 대개 불안감이나 긴박감을 자아내는 데 사용하며, 낮은 소리는 두려움이나 장엄함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소리가 빨라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고 반대로 느려지면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찍은 장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때 영화 속 소리는 나열된 영상들을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각기 다른 시간과 장면에서 찍은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여 영상의 시·공간적 간격을 메워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 속 소리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화의 예술적 상상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게 해 준다. 그래서 현대 영화에서 소리를 빼고 작품을 완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21.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 속 소리의 역할
- ② 영화 속 소리의 한계
- ③ 영화 속 소리의 편집 기법
- ④ 영화 장르에 따른 소리의 종류
- ⑤ 영화에서 소리와 영상을 연결하는 방법

22. 위 글의 ‘영화 속 소리’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사진은 처음에는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나, 점차 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 ② 한복은 과거에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었지만, 지금은 명절에도 잘 입지 않는 옷이 되었다.
- ③ 오페라는 뮤지컬에 비해 연극적 요소는 많지만, 춤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④ 서양화는 과거에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에 관심을 두었으나, 20세기에는 추상적 표현에 관심을 두고 있다.
- 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지금은 풍물놀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2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영화 <오발탄>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는 “가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주인공도 영화 마지막에 “가자!”를 내뱉는다. 이 짧은 대사는 6·25 전쟁 이후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가족의 절망과 좌절을 표현한다.

(나) 영화 <시민 케인>에서 케인과 그 부인이 식탁에 앉아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장면에서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사용되지만, 둘의 사이가 벌어지면서부터는 대화도 간략해지고 음악소리만 커진다.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일 때는 아예 대화가 없어지고 음악은 무겁게 가라앉는다.

- ① (가)는 영상의 시간적 배경을, (나)는 영상의 공간적 배경을 소리를 통해 보여 주는군.
- ② (가)는 소리의 반복을 통해, (나)는 소리의 빠르기를 통해 영상에 현실감을 부여하는군.
- ③ (가)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형성하는 데,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데 소리가 도움을 주는군.
- ④ (가)와 (나) 모두 영화 속 소리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군.
- ⑤ (가)와 (나) 모두 영상의 시각적 이미지가 주는 예술적 효과를 강조하는군.

24.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감면(減免)한다면 ② 감축(減縮)한다면
- ③ 약화(弱化)한다면 ④ 제거(除去)한다면
- ⑤ 축출(逐出)한다면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녁을 먹은 뒤에 더위에 쓰러져 있던 나는 아직 내가지 않은 밥그릇에서 젓가락을 꺼내어 손수건 좌우편 끝을 조금씩 감아서 부채와 같이 만들어서 부쳐 보았다. 훈훈하고 냄새 나는 바람이 땀 위를 살짝 스쳐서, 그래도 조금의 서늘함을 맛볼 수가 있었다. 이만 지혜가 어찌하여 아직 안 났던가. ㉠ 나는 정신 잃은 사람같이 팔을 들렸다. 이 감방 안에서는 처음의 냄새는 나지만 약간의 바람이 벌레 기어다니는 것같이 흐르던 가슴의 땀을 증발시키느라고 꿀 같은 냉미(冷味)*를 준다. 천장에 딱 붙은 전등이 켜졌다. 그러나 더위는 줄지 않았다. 손수건부채는 온 방 안이 흥내내어 나의 뒤엎사람으로 말미암아 등도 부쳐졌다. 썩어진 공기가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채질은 재판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중지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방에서 나갔던 서너 사람도 돌아왔다. 영원 영감도 송장 같은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간수가 돌아간 뒤에 머리는 앞으로 향한 대로 손으로 영감을 찾았다.

“형편 어떻습니까?”

“모르겠소.”

“판결은 어떻게 됐소?”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훑쳐매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대답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대단히 떨렸다.

“태형(笞刑)* 구십 도랍디다.”

“거 잘됐구려!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두 먹구, 바람두 쏘이구……. 난 언제나…….”

“여보! 잘됐시요? 무엇이 잘된단 말이요? 나이 칠십 줄에 들어서 태 맞으면, 말하기두 싫소. 난 아직 죽긴 싫어! 공소*했쎄다!”

그는 벌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뒤의 내 성도 그에게 지지를 않았다.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소? 당신은 당신이 죽겠다고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요? 이 방 사십여 인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아들 둘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살아 있으면 무얼 해? 여보!”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였다.

“여계 태형 언도를 공소한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이상한 소리로 껄껄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하였다. 바보로 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어 쫓아라. 여러 가지의 폼*이 일어났다.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대동강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 ㉡ 그 밑에서 더위와 목마름에 미칠 듯한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들의 입은 모두 바늘로 훑쳐매지나 않았다.

그러나 한참 뒤에 마침내 영감이 나를 찾는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

“왜 그러오?”

“그럼 어떡하란 말이요?”

“이제라두 공소를 취하해야지!”

영감은 또 멍멍하였다. 그러나 좀 뒤에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

“노형 말이 옳고. 내 아들 두 놈은 덩녕쿠 다 죽었쎄다. ㉢ 난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무얼 하겠소? 취하하게 해주소.”

“진작 그럴 게지. 그럼 간수 부릅디다.”

“그래주소.”

영감은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패통*을 쳤다. 간수는 왔다. 내가 통역을 서서 그의 뜻(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뜻)을 말하매 간수는 시끄러운 듯이 영감을 끌어 내갔다.

㉣ 자리에 돌아올 때에 방 안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중략)...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더위에 마비된 귀를 찢었다. 우리는 더위를 잊고 모두들 머리를 들었다. 우리의 몸은 한결같이 떨렸다. 그것은 태 맞는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

㉤ 서른까지 센 뒤에 간수의 소리는 없어지고 태 맞은 사람의 앓는 소리만 처량히 우리의 귀에 들렸다.

둘째 사람이 태형대에 올라간 모양이다.

“히도쯔(하나).”

하는 간수의 소리에 연한 것은,

“아유!”

하는 기운 없는 외마디의 부르짖음이었다.

“후다쯔(둘).”

“아유!”

“미쯔(셋).”

“아유!”

우리는 그 소리의 주인을 알았다. 그것은 어젯밤 우리가 내어 쫓은 그 영원 영감이었습니다. 쓰린 매를 맞으면서도 우렁찬 신음을 할 기운도 없이 ‘아유!’ 외마디의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매를 맞게 한 그 영감이었다.

“요쯔(넷).”

“아유!”

“이쯔쯔(다섯).”

“후—”

나는 저절로 목이 늘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머리에는 어젯밤 그가 이 방에서 끌려 나갈 때의 꼴이 떠올랐다.

“칠십 줄에 들은 늙은이가 태 맞구 살길 바라겠소? 난 아무케 되던 노형들이나…….”

그는 이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초연히 간수에게 끌려 나갔다. 그리고 그를 내어 쫓은 장본인이 나였습니다.

㉦ 나의 머리는 더욱 숙여졌다. 멀거니 뜬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나는 그것을 막으려고 눈을 힘껏 감았다. 힘있게 닫힌 눈은 떨렸다.

— 김동인, 「태형(笞刑)」 —

* 냉미(冷味): 서늘함. * 훑쳐매다: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매다.

* 태형(笞刑): 매로 불기를 치던 형벌의 하나.

* 공소: 항소의 옛말. * 뒤상: ‘늙은이’의 사투리.

* 폼: 남을 나쁘게 말함.

* 패통: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용무가 있을 때에 담당 교도관을 부를 수 있도록 벽에 마련한 장치.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중심인물의 성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회상을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6. [A]를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감독의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감'의 의상은 죄수복으로 준비하고 70대 정도의 노인으로 보이게 분장해 주세요.
- ② '나'가 판결 내용을 듣고 진심으로 '영감'을 위로하는 마음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③ '나'와 '영감'이 말다툼하는 장면에서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나타나도록 어조를 잘 살려 주세요.
- ④ '영감'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도록 화면을 편집해 주세요.
- ⑤ 마지막 장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영감'의 모습을 클로즈업해 주세요.

27.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보 기>

환경결정론은 인간의 삶이 그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자연주의 문학론은 이러한 환경결정론에 따라, 문학은 인물이 불합리한 환경의 지배를 받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보았다.

비인간적인 환경에 놓인 인물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냉정하게 그리고 있는 「태형」도 바로 이런 자연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8. ㉠의 이유를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 ② 간혀 있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서
- ③ 자신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 ④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를 뉘우쳐서
- ⑤ 장차 유사한 일을 겪을 것이 두려워서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신문, 잡지, 책 등에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소식을 듣거나 전하기도 한다. 이것을 의사소통이라 하며, 의사소통은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매체에 사용되는 언어를 매체 언어라고 한다. 매체의 유형 및 발달을 고려하여 매체 언어를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 언어, 통신 언어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자.

음성 언어는 말소리에 의하여 청각적으로 전달된다. 음성 언어는 주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어 왔다. 전화나 라디오, 녹음기의 등장으로 음성 언어의 이러한 시·공간적인 제약은 극복되었지만, 여전히 음성 언어는 얼굴을 마주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말의 내용 못지 않게 말소리의 높낮이, 크기, 속도 등 언어에 부수되는 요소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자세, 몸짓 등 언어 외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문자 언어는 문자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전달된다. 음성 언어는 말을 하는 순간에 곧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기록하여 남기는 방법을 궁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문자이다. 문자 언어는 주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므로, 표정이나 태도, 혹은 말소리의 높낮이나 크기는 전달하기 어렵다. 때문에 문장 부호를 쓰거나 글자의 크기와 모양에 변화를 주어 이런 한계를 보완해 왔다.

영상 언어는 영상 매체에 사용되는 언어이다. 영상 언어는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에 비해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의 요소인 말소리, 표정, 몸짓 등이 나타나고, 동시에 문자 언어의 요소가 화면 속에 자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영상 언어는 영상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정보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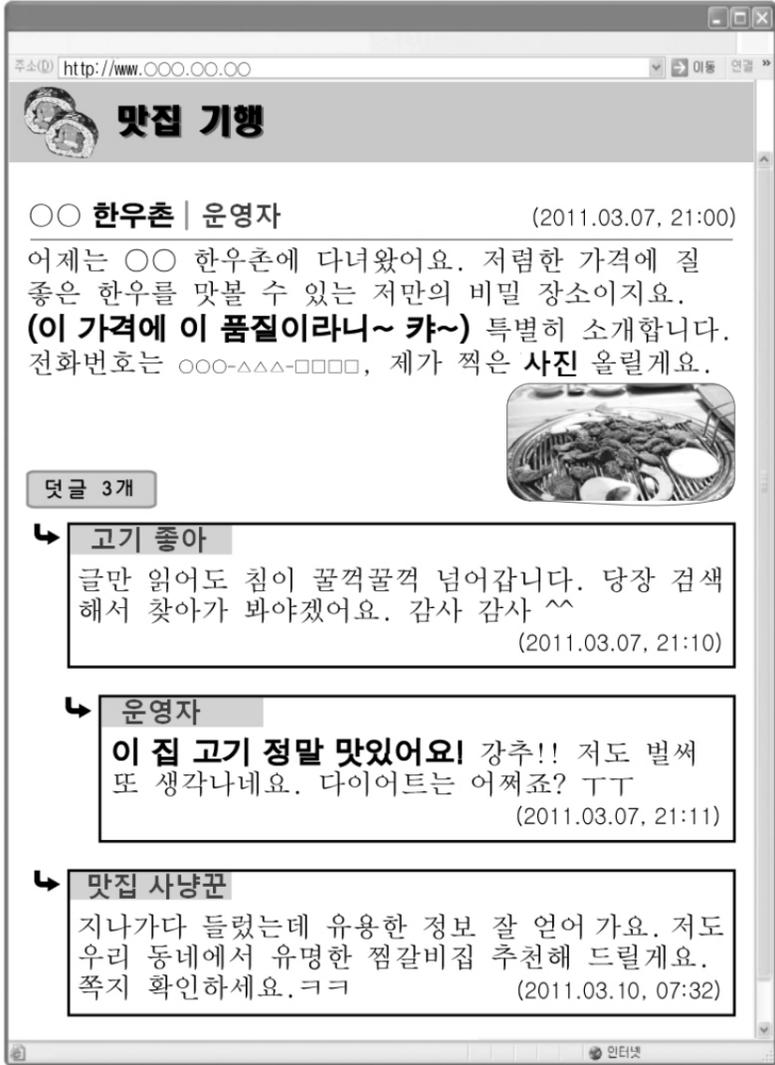
통신 언어는 인터넷 통신이나 휴대 전화 등 통신 매체에 사용되는 언어로 가장 나중에 등장하였는데,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 언어의 요소가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사진이 문자와 결합되거나 동영상과 사진 혹은 문자가 결합되어 한 화면에 나타난다. 누구나 이러한 통신 언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정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매체 언어는 ㉠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하는 의사소통의 방법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29.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 ② 매체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 ③ 영상 언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하여
- ④ 통신 언어의 전망과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 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30. 위 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하여 남길 수 있는 매체 언어가 사용되었군.
- ② 사진과 문자를 함께 사용하므로 정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겠군.
- ③ 매체의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가장 나중에 등장한 매체 언어가 사용되었군.
- ④ 음성 언어에 부수되는 요소나 외적인 요소를 문자를 활용하여 보완하려고 하였군.
- ⑤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있을 때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 언어가 사용되었군.

31.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신저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동시에 대화창에서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 ②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하면 받는 사람이 사진과 글을 한 화면으로 보며 재생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 ③ 국제 회의에서는 발표자가 자국어로 말하면 동시 통역사가 즉시 각 나라 언어로 통역한 내용을 들려준다.
- ④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다양한 이모티콘이 개발되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생생한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 ⑤ '보이는 라디오'는 기존의 라디오 방송과 달리 방송 현장을 촬영하여 영상과 음성을 사람들에게 동시에 제공한다.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무렵, 저 멀리 월출봉 취암사에 도사 한 분이 있으니, 그의 높은 술법은 귀신도 알아 내지 못하겠더라. 도사가 학대사를 불러 이르기를,

“내 듣건대, 용달촌에 용좌수라 하는 놈이 불도를 업신여겨 중을 보면 원수같이 군다 하니, 네 그놈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돌아오라.”

분부 받고 학대사는 나섰것다. 흰 굴갓 눌러 쓰고 마의장삼 걸쳐 입고, 백팔염주 목에 걸고, 육환장을 거머 쥐고 허위적허위적 내려오니, 계화는 활짝 피고 산새는 슬피 울며 가는 길을 재촉한다.

석양녘에 학대사가 용가집에 다다르니 어간대청 너른 집에 네 귀에 풍경 달고, 안팎 중문 솟을대문이 좌우로 활짝 열렸기에, 목탁을 딱딱치며 권선문(勸善文)*을 펼쳐놓고 염불로 배례할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주상전하 만만세, 왕비전하 수만세, 시주 많이 하옵시면 극락세계로 가오리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중문에 기대어서 이 광경을 보던 할미종이 넋지시 이르는 말이,

“노장, 노장, 여보 노장, 소문도 못 들었소? 우리댁 좌수님이 춘곤을 못 이기사 초당에서 낮잠이 드셨으며, 만일 잠을 깰라 치면 동냥은 고사하고 귀 뚫리고 갈 것이니 어서 바빠 돌아가소.”

학대사가 대답하되,

“고루거각 큰 집에서 중의 대접이 어찌하여 이러할까? 적악지가(積惡之家)에 필유여양(必有餘殃)이요,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 이르나이다. 소송은 여암 월출봉 취암사에 사옵는데, 법당이 퇴락하여 천릿길 멀다 앓고 귀택에 왔사오니 황금으로 일천 냥만 시주를 하옵소서.”

합장 배례하고 다시 목탁을 두드리니, 용좌수 별떡 일어나 밀창문을 드르르 밀치면서,

“어찌 그리 요란하냐?”

중놈이 조심조심 여쭙기를,

“문 밖에 중이 와서 동냥 달라 하나이다.”

[용좌수] 발각 화를 내어 성난 눈알 부라리며 소리 질러 꾸짖기를,

“괘씸하다 이 중놈아! 시주하면 어쩐다냐?”

학대사는 이 말 듣고 육환장을 눈 위로 높이 들어 합장 배례로 대답하기를,

“황금으로 일천 냥만 시주하옵시면, 소송이 절에 가서 수록체를 올릴 적에, 아무면 아무촌 아무개라 외우면서 축원을 드릴 제 소원대로 되나이다.”

[A] 용좌수가 쏘아붙이되,

“허허, 네놈 말이 가소롭다! 하늘이 만백성을 마련할 제, 부귀빈천, 자손유무, 복불복을 분별하여 내셨거늘, 네 말대로 한다면 가난할 이 뉘 있으며 무자(無子)할 이 뉘 있으리? 속세에서 일러 오는 인정마른 중이렷다! 네놈 마음 고약하여 부모은혜 배반하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 부처님의 제자인 양, 아미타불 거짓 공부하는 듯이 어른 보면 동냥 달라, 아이 보면 가자 하니, 불충불효 태심(太甚)*하며, 불측한 네 행실을 내 이미 알았으니 동냥 주어 무엇하리?”

...(중략)...

술법 높은 학대사는 괴이한 꾀 나는지라, 동자 시켜 쥔 한 단을 끌어내어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보니 영락없는 옹고집의 불측한 상이렸다. 부적을 써 붙이니 이놈의 화상, 말대가리 주걱턱에 어디로 보나 영락없는 옹가더라.

허수아비 거드럭거드럭 옹가집을 찾아가서 사랑문 드륵 열며 분부할 제,

“늙은 중 돌쇠야, 젊은 중 멍치, 깡쇠야, 어찌 그리 게으르고 방자하냐? 말콩 주고 여물 썰어라! 춘단이는 바빠 나와 방 쓸어라!”

하며 태연히 앉았으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분명한 옹좌수라.

이때 실용가가 들어서며 하는 말이,

“어떠한 손이 왔기로, 이렇듯 사랑채가 소란하게 구느뇨?”

허용가가 이 말 듣고 나았으며,

“그대 어떤 사람이기로 남의 집에 들어와 주인인 체 하느뇨?”

실용가가 버럭 성을 내며 호령하되,

“네가 나의 형세 유족함을 듣고 재물을 탈취코자 안으로 당돌히 들었으니 내 어찌 그저 두라! 깡쇠야 이놈을 잡아내라.”

노복들이 열이 빠져 이도 보고 저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나 이옹 저옹이 같은지라, 두 옹이 아옹다옹 맞다투니 그 옹이 그 옹이요, 백운심처 깊은 곳에 처사 찾기는 쉬울망정, 백주당상이 방 안에 우리 댁 좌수님 찾을 가망 전혀 없어, 입 다물고 말 없더니 안채로 들어가서 마님께 아뢰기를,

“일이 났소, 일이 났소! 아씨님 일이 났소! 우리댁 좌수님이 돌이 되었으니 보던 중 처음일세. 집안에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마님이 이 말 듣고 대정실색 하는 말이,

“애고 애고, 이게 웬 말이나? 좌수님이 중만 보면 당장에 묶어 놓고 악한 형벌 마구 하여 불도를 업신여기며,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 죄 어찌 없을까 보냐? 땅신령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 부려 하늘이 내리신 죄, 인력으로 어찌하리?”

- 작자 미상, 「옹고집전(雍固執傳)」 -

* 권선문(勸善文): 불교에서 신자들에게 보시를 청하는 글.

* 적악지가(積惡之家) 필유여양(必有餘殃)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 악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있고,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있음.

* 태심(太甚): 너무 심함.

32.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용가는 평소에도 불도를 업신여겼다.
- ② 허용가는 실용가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다.
- ③ 실용가는 도사가 학대사를 보낸 이유를 알고 있다.
- ④ 할미중은 학대사가 봉변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⑤ 마님은 평소 실용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33.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선인과 악인을 선명하게 대립시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주제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개 ㉠ 외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남다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전개 과정에서 ㉡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 우연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서술 과정에서는 서술자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산문이지만 ㉣ 운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4. [A]에 나타난 **옹좌수**의 태도를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면중복배(面從腹背)
- ② 안하무인(眼下無人)
- ③ 역지사지(易地思之)
- ④ 자격지심(自激之心)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35. **허수아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의 심리를 대변하는 소재이다.
- ② 주인공을 벌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 ③ 주인공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 ④ 주인공의 갈등 상황을 해결해 주는 소재이다.
- ⑤ 주인공에게 과거의 삶을 회상하게 하는 소재이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개 사람들은 동정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맹자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 간주(看做)하여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 근거(根據)로 삼았다. 데이비드 흄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도덕성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일반적인 ㉢ 견해(見解)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정심이 아닌 이성에 바탕을 둔 '의무 동기'이어야 한다. 의무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감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그 의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의무 동기에서 벗어난 어떠한 의도나 목적도 그 행위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가 보기에 동정과 연민, 만족감 같은 감정이나 자기 이익, 욕구, 기호(嗜好) 등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갑(甲)'이라는 사람이 빚진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찾아가는 길에 곤경에 처한 이웃을 만났다. 이웃의 고통을 본 '갑'은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생겨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였다. 칸트는 이러한 '갑'의 행위는 의무 동기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갑'의 자선은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마땅히 채권자에게 돈을 되갚아야 한다는 ㉣ 규범(規範)과 의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갑'의 행위는 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며 결과적으로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갑'에 대한 칸트의 평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 도덕적 의무감에 따른 행위만이 가치가 있다는 칸트의 주장을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지나치게 ㉤ 배제(排除)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의무와 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신의 의지에 감정, 욕구, 이익 등을 더한 것이 의무 동기이다.
- ② 칸트는 도덕적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③ 칸트는 행위의 동기를 도덕적 가치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 ④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 ⑤ 데이비드 흄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동정심을 도덕성의 근거로 여겼다.

40.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입장의 두 이론을 절충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② 각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을 반박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이론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④ 시간 순서에 따라 특정한 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⑤ 일반적 견해와 대비되는 특정 견해를 설명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41.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칸트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 ①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자기 회사의 제품을 구호물자로 기증한 경우
- ②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부상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경우
- ③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공장이 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 ④ 이웃을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여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경우
- ⑤ 텔레비전에 소개된 독거 노인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에게 익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경우

42. ㉠ ~ ㉤의 사전적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게 여김.
- ② ㉡: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 ③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 ④ ㉣: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 ⑤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43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近來安否問如何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月到紗窓妾恨多 ㉠ 달 비친 사창(紗窓)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若使夢魂行有跡 꿈 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門前石路半成沙 그대 문 앞의 돌길이 모래가 되었을 테지요.
 - 이옥봉, 「몽혼(夢魂)」 -

(나)

구름 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A]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 때가 많은지라
 좋고도 그칠 때가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제2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B]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니
 밤중에 밝은 빛이 ㉡ 너만 한 것 또 있겠는가
 보고도 말이 없으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 좋다: '깨끗하다'의 옛말.

(다) 나는 그믐달을 몹시 사랑한다.

그믐달은 ㉢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감쪽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 버리는 초승달은 마치 ㉣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毒婦)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怨婦)와 같이 애절한 애절한 맛이 있다.

보름의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승배를 받는 여왕과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마는, 그믐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 객창한등(客窓寒燈)*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恨)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 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고요한 꿈나라에서 ㉦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이 머리를 풀어뜨리고 우는 청상(靑孀)과 같은 달이다. 내 눈에는 초승달 빛은 따뜻한 황금빛에 날카로운 쇠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은 쳐다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마는, 그믐달은 공중에서 번들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빛이 있어 보인다. 내가 한(恨)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둑놈도 본다.

어떻든지 그믐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한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 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 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 하면, 그믐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 나도향, 「그믐달」 -

* 객창한등(客窓寒燈): 나그네가 묵는 방에 쓸쓸히 비치는 등불.

4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쓸쓸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 ② (가)와 (다)는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사물에 대한 개성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다) 모두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 모두 삶에 대한 회한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44. [A]와 [B]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상적인 관념에 이어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였다.
- ②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내었다.
- ③ 변화하는 대상들에 이어 변화하지 않는 대상을 제시하였다.
- ④ 자연물의 속성을 제시한 다음 화자의 구체적 체험을 드러내었다.
- ⑤ 사물들의 특징을 제시한 다음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였다.

4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의인화된 소재이다.
- ② ㉠과 ㉡ 모두 화자와 동일시된 소재이다.
- ③ ㉠은 자연적 존재이고 ㉡는 인공적 존재이다.
- ④ ㉠은 인생의 무상함을 ㉡는 자연의 영원함을 드러낸다.
- ⑤ ㉠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는 화자의 가치관을 부각한다.

46. ㉢ ~ ㉦ 중, 상황과 정서가 (가)의 화자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믐달에 대한 애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글을 시작하였다.
- ② 초승달이나 보름달과 대비하여 그믐달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 ③ 일상생활의 모습을 나열하여 그믐달의 가치를 드러내었다.
- ④ 그믐달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⑤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바라는 바를 드러내며 글을 끝맺었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발생과 관련하여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다. 무방식주의란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아무런 절차나 방식 또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저작권을 이야기하면 흔히 자신이 만든 저작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떠올린다. 이는 저작권의 일부인 ㉠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개념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로,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법률에서는 저작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등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일곱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권과 달리 보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의 원칙은 작품이 발표된 때로부터 그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존속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있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이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표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공개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하면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자 이름을 실명으로 표시할 것인가, 또는 예명이나 필명 등의 다른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가, 또는 표시하지 않을 것인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뜻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또,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처음 만든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이용자가 저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제목을 변경 혹은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만약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도 저작인격권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에게만 속하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이 소멸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권리의 발생과 관련하여 무방식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 ② ㉡은 가족에게는 넘겨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이다.
- ③ ㉠에 속한 권리의 종류가 ㉡에 속한 권리의 종류보다 더 많다.
- ④ ㉠과 ㉡은 동일한 창작물에 대해서도 소유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
- ⑤ ㉠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은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4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작가 홍길동의 생애			
30세	45세	60세	70세
A 작품을 창작하여 발표함.	B 작품을 발표하여 문학상을 수상함.	이후로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음.	사망함.

- ① A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60세 때이다.
- ② A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년 간이다.
- ③ B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70세 때이다.
- ④ A 작품에 비해 B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길다.
- ⑤ A 작품과 B 작품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서로 15년 차이가 난다.

50.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출판업자**: 동일성유지권을 고려하면, 참고서에 논문의 자료를 수정하여 실을 때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겠어.
- ② **작곡가**: 성명표시권을 고려하면, 내가 만든 음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굳이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겠어.
- ③ **번역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외국 소설을 번역할 때 원작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
- ④ **기자**: 공표권을 고려하면, 발표되지 않은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을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겠어.
- ⑤ **학생**: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친구가 가명으로 공개한 보고서를 이용할 때 친구의 실명을 밝히면 안 되겠어.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